

“바닷모래 채취 환경파괴·어획량 감소 큰 피해”

정부 4대강 준설토 대체골재 사용 불가에 수협·어민, 제도개선 토론회서 강력 반발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수협과 골재 채취업자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등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민과 수협은 환경 파괴에 따른 어획량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쌓여있는 준설 모래를 대체골재로 사용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위원 및 전현희 위원회 주최로 바닷모래 채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춘 위원장은 “최소한 바닷모래 채취가 어민 영향을 미치지 않게 대한 검증이 이뤄진 후에야 채취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해사 채취 중단 후 면밀하게 피해와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부

터 나설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수협 조합장과 어민들도 “바닷모래가 없어 건설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어민들을 압박하는데만 골몰한다”며 비판했다.

예초 어민과 수협 측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골재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바닷모래 채취의 불가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박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어민들은 “어민 피해, 환경 피해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채취비용만 반영하기 때문에 싸게 보일 뿐”이라며 “피해에 따른 손실비용을 반영하면 바닷모래는 지금처럼 마구 퍼내 쓸 수 없는 값비싼 골재”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4대강 준설 모래도 제대로 처리 못 하면서 바닷모래만 퍼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어주에 쌓여 있는 강 모래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이 ‘바닷모래를 건축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염분과 조개껍질 같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는 여러 혼합물이 뭉쳐 굳으며 한 덩어리로 굳어진 것. 이때 수분에 잘 녹는 염분이 섞이게 되면 풍화작용을 촉진시켜 시멘트의 결합력을 떨어뜨린다. 아울러 조개껍질은 모래에 비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시멘트 입자의 균질성을 저해한다’고 밝혀 성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건설사인광수협 정연승 조합장은 “바닷모래 채취 허용은 절대 안 된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경상대학교 김우수 교수는 바닷모래채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문제점을 밝혀 해결한 뒤 채취 문제를 다루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는 점 ▲과도한 바닷모래에 의존하는 골재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채취해역관리 및 작업관리의 부실함 ▲기존 어업피해조사 보고서가

안고 있는 오류 등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해양환경관리공단 손규희 박사도 “골재는 공유재산자 공공재로 골재업자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채취비용만 고려했을 뿐,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은 가격논리 시장경제논리 상 여주에 있는 준설토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채취방법, 단지 관리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바닷모래 채취를 축소하고 대체 골재 수급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선망수협과 경남 14개 수협 조합장은 오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펄프준설선에 의한 바닷모래 채취는 고농도의 부유물질을 발생시키고 해저에 직경 수십~수백m, 최대 깊이 20m의 구덩이를 만들어 수산생물의 성장이나 서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한국수출지표·중국양회 기대 반도체 하반기 실적개선 지속

계약·유통·증권주 관심

지난 21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순매수하며 코스피지수가 1년 7개월만에 2100선을 회복했지만 24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인프라투자 시기가 늦춰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차익매물이 증가하며 2094포인트로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코스닥지수는 주간기준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했으나 기관이 5일연속 순매도하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일별 순매도 규모도 확대되며 (주간순매도 1689억) 3주연속 하락 마감했다.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코스피지수와 달리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가격메리트가 발생한 코스닥지수의 반등을 위해서는 실적과 수급개선이 필요하므로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는 실적과 수급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시기를 찾아야 한다.

이번주에는 3월 1일 발표되는 2월 한국수출지표와 3일부 터 열리는 중국양회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증시의 강세에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지수가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안정과 한국 수출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실적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코스피지수의 박스권 돌파때 한국의 수출경기 개선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고 환율하락과 함께 외국인매수가 지속되며 시장상승 모멘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3월 중국양회에서는 과거 양회에서 보였던 경기부양보다는 지방정부 양회에서 다뤘던 한계산업의 공급개혁, 국유기업개혁, 부동산 및 금융규제 등 구조조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양회에서 트럼프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심의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사업(일대(One Belt)는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일로(One Road)는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말한다)에 대해 더욱 중점적인 추진사항들이 발표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2017년 하반기 반도체 경기 전망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삼성그룹 총수 구속까지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크게 상승한 반도체가격의 영향으로 장기공급 업체와 고공공급가격 상승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실적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장비업종의 경우 중국정부의 지원속에 중국기업의 반도체시장 진입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도체 장비업체의 추격매수는 부담스럽지만 저가매수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북한 미사일발사와 김정남피살로 중국의 사드제재 명분이 약화되고 있어 대중국관련주와 원달러 환율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약, 유통 등 내수주에 관심과 코스피지수 2100선 돌파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행운광파사은예금’ 출시 ... 4월 21일까지 농·축협 판매

농협전남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최근 ‘2017행운광파사은예금’을 출시하고 오는 4월 21일까지 전국 농·축협을 통해 한시 판매한다.

2017행운광파사은예금은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목돈운용 계획에 맞춰 가입기간 및 이자지급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비교세 또는 세금우대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다. 농협은 상품의 출시와 함께 5가지의 다양한 새봄맞이 이벤트를 펼치며 가입고객 중 총 2574명에게 추첨을 통해 순금골드바



10톤, 안마의자, 김치냉장고, TV 등 총 1억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직원 칭찬 댓글 달기’ 이벤트를 펼쳐 참여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농촌사랑 상품권을 제공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4월 중순까지 배추 2만1000t, 무 2만2000t 공급

정부, 비상경제 대응 TF회의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자관회의 겸 법정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채소류 수급·가격동향과 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 비축물량 방출, 기상 호전 등으로 배추, 무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봤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봄 채소가 출하하는 4월 중순 전까지 배추 2만1000t, 무 2만2000t을 도매시장과

소비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가격이 오른 채소류에 대해 다음 달 2~12일, 다음 달 16~26일 농협 계통 매장에서 할인행사도 펼칠 계획이다.

대중적인 수산물이자 최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는 오징어, 갈치 등 가격동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평년대비 50% 이상 가격이 오르면 즉시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CS 3.0 봄 확산 세일즈 매니저협의회’

농협광주본부, 마케팅 추진방향·교육컨텐츠 공유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박 태선)는 최근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 지역 농협 SM(세일즈 매니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CS(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 3.0 봄 확산을 위한 SM협의회’를 개최하였다.

SM협의회는 마케팅 교육역량을 갖춘 SM을 활용해 마케팅 붐을 주도하는 자발적 지역단위 조직으로 이날 참석한 SM들은 금융기관 최고의 CS 실천 운동인 농협의 ‘더 헤아리는 CS 3.0’이 확산되고 실현되도록 실천방안을 토론했고 마케팅 추진방향 및 교육컨텐츠 자료를 공유했다.

또 농업인이 행복한 농협 구현을 위해 가슴을 활짝 열고 농심으로 농업인과 고객을 감동시키는 금융기관 최고의 CS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서비스 응대를 강화하여 고객을 더 알고, 업무지식 함양으로 업무를 더 알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고객과 소통을 더 하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한 4대 행동규범을 잘 숙지하고 생활화하여 고객님들이 인정하고 지역사회에 농협 CS 3.0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매진하자”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